

다종교사회와 천도교 교역자 양성

노 태 구

(경기대학교)

I. 서 론

宗教가 社會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宗教는 정신세계를 이끌어 가는 인간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社會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건전한 宗教활동이 있어야 한다.

인류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역에 따라 그때그때 민도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 오면서 道德질서를 세우고 점차 고도의 文化를 형성해 왔다. 때로는 특정 종교를 國敎로 정하고 민중을 획일적으로 敎化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여러 宗教가 共存하면서 多樣性を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종교들이 각각 다른 신념체계와 우월성을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독특한 다종교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신념체계를 달리하는 종교인들간의 정신적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면면히 흘러오는 民族고유의 정신 속에 儒佛仙 合一의 정신 즉 宗教和合의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종교간의 대화와 연합활동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宗教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이슬람이, 보스니아는 세르비아 정교와 이슬람이, 필리핀은 카톨릭과 이슬람이, 레바논과 수단은 기독교계와 이슬람이, 영국 북아일랜드

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란은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가, 스리랑카는 소승불교와 힌두교가 서로 적개심과 살육을 일삼고 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 보이는 문화현상이다. 이 현상으로서의 종교는 역사의 발전단계나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차이에 따라 현저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삶의 영위’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 삶의 영위라는 명제를 보다 바람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또는 수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와 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의 올바른 가르침, 즉 종교상의 지식, 의례 등에 관한 교양을 비롯하여 종교적 정서를 함양하고 종교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종교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그 종교가 지니고 있는 宗旨의 規範이나 理想이 겸손, 성실로써 일관되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영원한 빛을 찾게 하며, 인내와 전진, 그리고 극기의 생활로써 자신의 평화나 위안을 얻도록 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천도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 목적, 방법 및 과정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多宗教社會를 이끌어 갈 宗教指導者 교육문제는 특별히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종교분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천도교의 교역자 육성 현황, 다종교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역자 교육의 방향, 다종교사회와 천도교의 역할, 다종교사회의 전망 등을 짚어 봄으로써 다종교사회에서의 건전한 종교문화 형성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Ⅱ.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인의 과제

多宗教社會에 대처하기 위한 천도교 교역자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려면 먼저 한국사회의 종교현황과 북한의 종교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한국사회의 종교현황

1997년도 文化體育部에서 발행한 「韓國의 宗教現況」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종교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 종교별 교세현황

구 분	단 체	교당수	교직자수	신 도 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 11. 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 11. 1)
불 교	39	11,561	26,037	10,321,012	8,059,624
개 신 교	168	58,046	98,905	8,760,336	6,489,282
천 주 교	1	1,019	10,152	2,950,730	1,865,397
유 교	1	234	17,577	210,927	483,366
천 도 교	1	280	5,551	28,184	26,818
원 불 교	1	418	9,630	86,823	92,302
대 종 교	1	102	342	7,603	11,030
그밖의종교	21	2,947	177,171	232,209	175,477
계	233	74,607	345,365	22,597,824	17,203,296

※ 교단, 교당수, 교직자수는 각 종교단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임.
(‘95. 11. 1 기준 통계청 집계 우리 나라 인구수: 44,553,710)

이 통계표 외에도, 태극도, 갯정유도회, 천존회, 수운교, 증산교, 증산법 종교, 미륵불교, 청우일신회, 한불교, 성덕도, 대순진리회, 영주교 등... 많은 민족종단이 있고 수백만의 신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종교연합기구로 한국종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종교협의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이 있다.

2. 북한의 종교실태

북한이 1950년에 펴낸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해방 당시 북한에는 천도교도 약

150만명, 불교도 약 37만 5천명, 개신교도 약 20만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명, 총계 약 200만 여명의 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 북한 인구의 22.2% 수준이었다. 그리고 성직자는 승려 732명, 목사 908명, 신부·수녀·수도사 등 262명이고, 교당이나 사찰수는 천도교 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약 2,000여개, 천주교 3개 교구 등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의 종교말살정책으로 약 10만 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고, 전쟁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배교함으로써 현재는 극소수의 신자들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1994년 현재 북한의 종교인수는 3만5천여명으로 인구의 약 0.2% 수준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신도수와 교당을 지니고 있는 종교는 천도교로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청우당원은 22명이고 지방의회 대의원으로 300여명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높다. 기독교와 불교가 각 1만명, 가톨릭이 1천2백명이다.

불교의 경우는 최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객 유치라는 차원에서 사찰이 활발하게 복원되고 있는데, 사찰에 승려가 상주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며 일제시대 때의 승복을 입고 있는 점등이 아직 어설픈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불가의 3대기념일인 석탄절, 열반절, 성도절 등에 예불을 집전하고 불교학원을 설립해 승려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천주교의 경우 아직 신부와 수녀, 수사가 없지만, 곧 신부 1명을 탄생시킬 계획이며, 독일의 성오틸리엔 베네딕트 선교회가 성당을 1개 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경우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보고 앞으로 4개소의 교회를 더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1972년에 평양신학원이 설립된 이후 성직자를 양성하고, 이외에 해외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역시 관제적인 것이어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런 관제활동 외에 개인적 차원의 신앙활동이 지하에서 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 추산된 것이지만, 약 100~500여개의 가정교회가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 중국-북한 국경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따르면 ‘성경밀수출작전’을 통해 수백권의 성경책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현재 북한에는 그간의

종교제거정책과 어용적인 종교정책으로 종교의 부재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점차 통제력이 이완되고 있는 사회변화와 누수로 인해 종교가 소생기에 접어들고 있음이 엿보이고 있다.

1998년 8월 8일자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북한이 남한 종교계 인사 40여명을 초청했고 정부는 이들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이다. 민간의 남북교류를 정치 군사문제와 분리하겠다는 대북정책 원칙에 부합되지만 북측 태도가 석연치 않다. 북한은 8·15축전을 공동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남한 민간단체들도 통일운동대표기구로 민화협(民和協)을 결성해 공동행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북측은 민화협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인들만 초청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내세워 남북합동 종교행사를 갖자고 제의해왔다. 북한에는 현재 천도교교당 8백개, 불교사찰 60개, 교회 2개, 성당 1개가 있다. 신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천도교다. 북한의 공식자료인 조선중앙연감 1950년판에는 천도교도 1백 50여만명, 불교도 37만 5천여명, 개신교도 20여만명, 천주교도 5만 7천여명으로 돼 있었다. 당시는 북한인구의 22.2%가 신앙인이었다.

◇북한정권의 초기 종교관은 ‘인민에 대한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 교리와 동일했다. 예수교든 불교든 본질상 다 미신이라고 했던 김일성 교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러다가 종교활동 징후가 나타난 것은 80년대 들어서였다. 85년 고향방문단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배나 미사를 보았다. 이어 88년과 89년에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장충당성당이 지어졌고 광법사, 보현사가 재건됐다.

◇북한은 72년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했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도 함께 삽입해 이를 견제했다. 92년에는 반종교 조항을 삭제하면서 “종교를 외세 끌어들이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다시 제한했다. 현재 북한 신앙인수는 3만5천여명, 인구의 0.2%로 50년에 비해 지리멸렬한 상태다. 조선종교인협도 노동당 외곽단체 조국통일민주전선 소속이어서 남한 종교인들이 평양에 8·15행사를 경축하러 왔다고 선전하지 않을까 꺼림직하다.

다종교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공동의 과제로 삼고 적극 힘써 나가는 것이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우주에 神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신앙대상에 대한 명사만 다를 뿐 다 같은 神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신앙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본정신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科만 다를 뿐 동일한 種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인류는 한 동포, 한 형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주에 神이 한 분이니까 인류는 다 같은 神의 아들 딸이며 한 동포 한 형제가 분명한 것이다. 만물도 나의 동포인 것이다. 人吾同胞 物吾同胞인 것이다.

3) 宗教는 인간자신의 최고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인간의 근본문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天人合一의 자아완성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4) 타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 종교의 장점을 말하되 배타적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타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존중해야하며, 다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원만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각각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공통점을 찾고 信仰合一을 추구하면서 마음밖에 한울을 두거나 (心外置天) 習慣天을 믿지 말고 自我本來天主를 믿음으로써 天人合德, 自由極樂, 公道公行의 높은 신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5) 종교인의 사명이 막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종교인은 많으나 세상은 어지럽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명완수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다종교사회에서의 천도교의 역할

1. 천도교의 역할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다. 군소종단까지 생각하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리만큼 많다. 그런데 천도교가 출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필시 천도교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천도교는 儒佛仙을 비롯해서 기성 종교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타종교를 이단으로 보지 않고 다 같은 종교인으로서의 원만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종교사회에 적응하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능히 종교화합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3·1운동을 주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인간성 회복, 전쟁과 질병과 경제위기 극복, 환경보전, 종교화합, 가치관의 정립 등 인류생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人乃天사상에 있다고 볼 때 천도교의 책임이 막중함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천도교의 人乃天사상은 다종교사회를 이룬 한국의 종교적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自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남북화해 등 민족사회의 화합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종교융화의 새로운 종교문화를 이 땅위에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이념의 원리

천도교에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지만 ‘가르친다’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

‘너를 세상에 내어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문기를 그러면 西道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洞開 重門하여 두고 오는 사람 가르치니 不勝 堪當되었더라’

‘무극한 이내 도는 내 아니 가르쳐도 운수 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받아 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남의 師長되는 법을 來者不拒 아날런가. 가르치기 위주하니 그밖에 무엇이며’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천도교가 지니고 있는 ‘종교성의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 白世明은 ‘인간의 개량(교육:필자)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개량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개량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인간만 개량된다면 모든 것은 다 개량될 것으로 보아서 별로 망발은 아닐 것이

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종교에 있어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르침, 즉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는 또한 ‘天道의 가르침에 의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한울님을 모시게 되면 자연히 게으름뱅이가 부지런해 질 것이며, 거짓말쟁이가 진실해 질 것이며, 더럽던 사람이 깨끗해 질 것이며, 유약하던 사람이 용감해 질 것이며, 욕심쟁이가 욕심이 없어질 것이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 질 것이며, 허약한 사람이 건강해 질 것이다. 그리하여 아주 수준이 낮던 사람이 수준 높은 인격인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천도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이념은 교조인 수운 최제우의 핵심사상인 侍天主 사상에 입각하여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의 교육사상이 아무리 다르다 하여도 그 속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와 교육의 기준이라고 하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천도교의 교육 이념의 원리로는 侍天主·人乃天·開闢·輔國安民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侍天主 사상

천도교의 핵심은 한울님(天)의 사상이다. 천도교는 한울님을 그 신앙 대상으로 하며 이를 侍天主라고 표현한다. 교조 수운 최제우는 봉건사회의 차별적 인간관을 부정하고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며, 한울님을 모시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시천주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천주의 주체는 개개인에게 있으며 한울님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수운 최제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
네 몸애 모셨으니
捨近取遠 하단말가

수운 최제우는 인간의 신분인 귀천, 상하, 반상의 구별을 철폐하고 스스로 한울님을 모시면 다 같이 地上神仙이며 군자라고 함으로써 만민평등의 인간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운 최제우는

음과 양이 서로 어울려 비록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마는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하면서 인간을 가장 신령한 존재로써 우주의 중심으로 파악했다. 그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귀한 것은 오로지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은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한울님을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 진다고 하였다. 그는 한울님을 모심으로써 無爲而化를 통해 한울님의 무궁한 덕화, 한울님의 섭리를 깨닫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운 최제우의 사상은 지극히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그의 종교 사상의 밑바탕에는 인간중심적인 교육사상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천주의 한울님 사상은 한울(天)과 인간과의 관계를 동격으로 취급하여 인간성 내부에 한울님을 모신 신령한 존재로 보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으며, 당시의 빈부 귀천의 차별주의를 반대하여 평등의 인간관계를 가르쳐줌으로 근대적 인권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人乃天 사상

水雲 崔濟愚의 시천주의 인간존중사상은 海月 崔時亨의 養天主에 이어 義庵 孫秉熙에 이르러서는 人乃天으로 발전 계승되었다. 인내천 사상은 의암이 초기에 지은 覺世眞經에 있는 ‘人以待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는 授受明實錄에서 ‘사람이 곧 天人이란 천(天)이 만물을 化生하고 그 뜻을 사람의 형체에 맡겨 뜻대로 만물을 쓰게 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전개하에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大告天下하고 1907년 10월에 발표한 大宗正義를 통해 공식적으로 ‘人乃天’을 확립하였다. 당시 주요 교역자인 梁漢默은 천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였는데 그는 천도교의 사상적 요지를 人乃天이라 규정하였다.

大神師는 吾敎의 元祖라. 其 思想이 博으로 從하여 約에 至하니 其 要旨는 人乃天이

라. 人乃天으로 敎의 客體를 成하고 人乃天을 認하는 心이 其 主體의 位를 點하여 自心 自拜하는 敎體로 天의 眞素의 樓岸에 立하나니 此는 人界의 初創 大宗正義라 謂함이 足 하도다.

이러한 사상은 夜雷 李敦化에 의해 人乃天主義로 발전하였다.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은 해월의 事人如天을 거쳐 발전되어 온 의암의 人乃天 사상은 당시의 민중에게 스스로 비판적으로 자각케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지배자와 비인도적인 외세의 침략에 항거할 수 있는 자각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시천주와 인내천의 이념은 동학혁명, 갑진개혁, 3.1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승화되었으며, 인간의 고귀한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불의와 부정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 앞장선 한국의 독특한 휴머니즘 사상으로 남았다.

3) 開闢 사상

李敦化는 ‘개벽이란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처음 생긴다는 뜻을 가지는데 여기의 개벽사상은 인문개벽을 뜻한다. 세계가 불안과 악질로 가득 차서 혼돈에 빠져 암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개벽과 같은 새로운 큰 변혁을 통하여 건져지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 지나간 세상을 先天이라 하고 미래의 새 세상을 後天이라 하여 낡은 선천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의 새 세상이 열린다는 뜻으로 後天開闢을 내세운 것이다. 따라서 후천개벽은 천지개벽이 아니라 文化開闢을 뜻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문화 전반의 일대 변혁과 새로운 창조의 교체를 뜻하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후천개벽의 역사관은 역사의 순환에 따른 천운의 회복을 뜻한다.

下元甲 지내거든
上元甲 好時節에
萬古없는 無極大道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年淺해서
億兆蒼生 많은 백성
太平曲 攄壤歌를

불구에 불 것이니
이 세상 無極大道
傳之無窮 아널런가(몽중노소문답가)

수운 최제우는 하원갑이 끝나면 시운이 돌아 새 세상이 돌아올 것을 언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후천개벽의 사상으로 모든 선천적 봉건적 반민주적인 선천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민족평화와 번영, 평등의 세계가 열린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천개벽사상은 사회질병과도 관계가 있다. 수운은 당시 사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開闢時 國初日을
滿紙長書 내리시고
....
기험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 기험하다
십이제국 피질운수
다시개벽 아널런가(안심가)

십이제국 피질운수
다시개벽 아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몽중노소문답가)

당시의 사회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병들어 있었고 개혁사상은 이와 같은 병적인 사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인 후천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병과 개혁사상은 별개의 사상체계가 아니라 이상향을 지향하는 사회진화과정에서 처음과 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사상은 민중 깊숙이 파고들어 동학혁명으로 전개되었다.

4) 輔國安民 사상

천도교의 보국안민 사상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민족주의 의식의 선구적인 자각이었다. 수운 최제우의 사상에서 국가관, 민족관을 포함하고 있는 사상은 ‘輔國’에 함축되어 있으며,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려는 의식이 포함된 것은

‘安民’ 사상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민중의 권리와 지위향상 등을 자각한 사람을 개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근대적 국가의식이자 민족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 가련하다.
전세인진 몇해런고
이백사십 아널런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널런가(안심가)

수운 최제우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동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의 부패 타락 토색질이 공공연했던 사회적 병폐와 잣았던 질곡에 시달리는 민중을 위한 안민의 해결의 방안은 복구과 안민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자신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또한 한울님께
육새보전 봉명하네(안심가)

라고 하면서 자신이 동학으로서 사람들을 깨우쳐서 난세를 다스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대내적 위기에 대처해서 안으로는 누적된 봉건적 질곡과 그에 따른 신분질서의 저항이며, 대외적으로는 斥倭와 脫中華라는 민족자주의 뚜렷한 지향성을 내걸고 있다.

그러므로 보국안민 사상 속에는 외세침략에 대한 경계로부터 사대주의를 배격함으로써 민족주체성과 자결을 내세웠으며, 따라서 민생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함으로써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념이 깃들어 있다.

IV. 천도교의 교역자 교육 현황

천도교는 宗學大學院 교육, 修道院修鍊·교역자 단기 재교육·修鍊講道會등을

통해 교역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천도교 정신을 전학이념으로 설립한 高等學校와 예술전문대학에서 천도교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학대학원은 중앙총부 직영 교육기관으로 정규반, 야간반, 통신반, 연구반 등으로 구분하여 1년과정(연구반은 별도)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天道敎 經典(東經大全, 용담유사, 海月神師法說, 義菴聖師法說), 敎理, 敎史, 宗教學, 비교종교, 儀節, 天德頌, 기타, 교양과목으로 되어 있다.

수도원은 용담수도원을 비롯해서 10개소이며 수련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多宗教社會에서의 천도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교역자의 자세확립에 힘쓴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後天開闢의 새 종교지도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守心正氣, 誠敬信, 以身換性, 天人合一의 자아완성을 위한 수련과 교리 교사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布德廣濟의 방책연구를 심도있게 하여 人乃天사상을 사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오늘의 다종교사회와 미래사회를 바라보면서 교역자의 원만무결한 인격완성을 추구하며 투쟁이 아니라 氣和, 분열이 아니라 同歸一體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힘쓰고 있다.

1. 천도교 교육의 목적

종교교육의 목적은 그 종교가 지지고 있는 宗旨를 가르치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修道는 천도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 방법이다. 修道란 문자 그대로 도를 닦는다는 말이다. 도를 닦는다는 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닦아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도란 "온갖 지적인 미혹에서 벗어나고 정의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수양을 쌓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도를 통해서 인내천의 진리로 교육을 실현해 가면 개인의 행복과 민족문제의 자유·평등·평화가 동시에 실현되는 지상천국을 건설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수도의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우주 질서에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노력을 수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도는 마음을 닦는 일이다. 배근지달이라는 말이 있다. 나무는 뿌리를 북돋아야 무성하게 자란다는 말이다.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수운은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으라, 현인 군자 될 것이니 도성덕립 못 미칠까”, “인의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라 하여 수도의 요체를 수심 정기와 성·경·신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도는 한울님 모심을 깨닫고 천인합일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이다. 나에게 정신, 생명이 있듯이 우주에도 정신과 생명이 있다. 그 대우주를 부모와 같이 존칭해서 한울님이라고 한다. 이를 깨닫고 천인합일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수도라고 한다.

넷째, 나 자신을 깨닫는 일이다. 이를 나무에 비유하면 성품은 뿌리요 줄기와 같고, 마음은 가지와 같고, 육신은 잎과 같다. 성품과 마음은 한 가지로 무형이지만 성품은 작용하기 전 상태요 마음은 작용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성품과 마음을 아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으로 터득해야 하며, 육신의 질병이 다 없어지고 내 몸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어야 성·심·신을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궁한 한울 속에 본래의 나를 깨달아 남과 내가 둘이 아니오,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오,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며 그리하여 기쁨과 보람과 자유, 즉 자유·평등·박애를 찾게 될 것이다. 즉 성·심·신을 다 깨달아야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노력을 수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인질병, 장생불사, 만사여의라 힘을 기르는 일이다. 인간의 소원은 한 없이 많으나 이를 요약하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겠다는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일을 뜻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운 최제우의 가르침인 시천주의 진리를 알고 수련을 계속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장생할 수 있고 모든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섯째, 수도는 성·경·신을 체행하는 일이다. 수운 최제우는 ‘우리 도는 다만 성·경·신 석 자에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 갖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신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번째, 수도는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의 대업을 성취하는 일이다.

천도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어느 과정이나 다 중요하지만 이상에서 돈 바와 같이 특히 수도하는 사람은 항상 수심정기의 수련과 정성, 공경 믿음을 체행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있다.

2. 교육내용과 방법론

신앙이나 배움에 있어 주체는 시작과 마무리가 말할 나위도 없이 학습자인 나에 있는 것이며 스스로를 각득시키고 그 소임을 인지한다면 배움의 길은 쉽게 터득할 수 있다.

대개 종교의 교육에 있어서 주문의 암송을 통한 정신집중과 일체화, 그 종교가 요구하는 제반 계율을 준수하는 생활상의 정진이나 정화가 요청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종교가 지니는 독특한 종교교육의 내용이며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러한 수련과정 즉, 종교교육에 있어서 주문의 맹목적 암송이나 이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진정한 종교적 수양은 주문의 암송과 이치의 생각, 즉 두 가지를 절충하면서 모양하는 마음가짐을 늘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천도교의 종교적 교육의 근본은 주문에 있다. 주문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이다. 천도교의 주문은 바로 한울님을 진심으로 위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글이다. 어느 종교나 입교를 하면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필수적인 구비조건이다. 천도교도 교인들에게 정성껏 주문을 외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문의 구송 이유는 종교상 수행의 효과 이외에도 포교성의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다. 주문을 외움으로써 자신이 교인임을 자처하고 신앙의 적극적인 행동화가 가능하며 또한 교우로써의 공동체적인 의식도 갖게 한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과정을 수도라 하는데, 이 수도를 통해서 올바른 종교적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 수도에 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은 모든 의혹을 털어버리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먼저 차림을 단정하게 해서 바른 몸가짐을 지녀야 하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거나 침을 함부로 뱉은 일, 누워서 주문을 소리 높여 외우는 것과 같은 태만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기 사항은 일상적인 사회 윤리적인 것도 있으며 개인적인 생활이나 개인생활에서 청결을 위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신을 올바르게 닦아나가고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과 절차로 明德命道하고 誠敬畏心하는 자신의 확인 방법을 비롯한 수도의 기본을 밝히고 있다.

3. 교육의 과정

그 동안 우리는 수도의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도성 덕립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도교에 이르러 수도의 절차와 단계가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위해 천도교의 도법을 따라 잘 배워 실천하면 누구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인내천의 진리를 깨닫고 도성 덕립을 이룰 것이다. 수운은 “10년을 공부해서 도성 덕립하게 되면 속성이라 하지마는 무극한 이내 도는 삼 년 불성되게 되면 그 아니 헛말인가”라고 하였다.

천도교에 입교하여 지성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강령이 되어 한울님 모심을 체험하게 되고 차차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는 강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여기서 쉬지 아니하고 계속 정심 수도로 정진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다 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천자각이 되고 나아가 육신 관념에서 일어나는 물욕과 감정과 ‘나’라는 관념마저 버리어 회노애락에서 초탈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드디어 우주, 인생의 근본을 깨닫고 본래의 나를 찾는 대도전성의 경지에 이르러 도성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강령, 강화 등 각 발령 과정을 虛光心 단계라 하고 자천자각, 해탈전성의 과정을 如如心 단계라 하고 대도 전성으로 공도 공행하는 과정을 自由心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도자는 필히 허광심, 여여심, 자유심의 세 단계를 잘 알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도 생활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일까? 수도를 하려면 한울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투철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성품과 마음(성심)을 초보적이나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첫째, 한울님을 믿는 마음이 우선 투철해야 한다. 한울님은 잠깐도 쉬지 않고 모든 일을 간섭하고 명령하시며 무위이화의 이법으로 만물을 생성 화육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한울의 무한 능력, 지혜, 공급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운은 「포덕문」 첫머리에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바뀌지도 아니 하니 이 또한 한울님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다”하고 선신 후성을 말하였다.

천도교는 신앙의 대상이 한울님이다. 그 어의를 생각해 보면 ‘한’은 오직 하나, 유일 무이하다는 뜻이요, 무한히 크다. 만유의 근원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 신관념이 들어 있다고 본다. ‘울’은 무궁한 이 울타리, 우주, 우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님’은 신의 인격화를 의미한다. 즉 한울님은 우주신이요 ‘본래의 나’요, ‘큰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해월은 “마음이 곧 한울이요, 한울이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한울 없고 한울 밖에 마음 없다”고 하였다. 고대인들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신을 높고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으나 천도교 시대에 와서는 시천주의 완전한 신앙과 수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성품과 마음(성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논학문에 “한울님 마음을 지키고 한울님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온다”는 표현이 있다. 또 수도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無體法經』에도 첫머리에 ‘性心辨’이 있고 성심쌍수라는 구절이 있다. 먼저 성품과 마음을 분별하여 쌍방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견성각심이 되면 환하게 알겠지만 우선 이치로서 기운이 작용하기 전 상태요, 마음은 기운으로서 작용하는 상태라는 정도는 알고 수도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묵송 때에는 주로 견성, 즉 나의 근본을 깨닫는 공부를 하고, 현송 때에는 주로 심화 기화, 즉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는 공부 또는 양기, 각심 공부에 주력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것을 성심쌍수라고 한다

IV. 천도교 교역자 조직과 품계

1. 조직과 품계

천도교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屬人制이며 다른 하나는 機關制이다. 속인제는 교조 대신사가 천도교를 창도한 포덕 원년부터 포덕 47년 현재의 중앙총부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교단 중심적 조직체제였으며, 기관제는 중앙총부 설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직체제이다. 속인제의 그 틀은 현재 淵源會가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천도교의 조직체제의 효시는 포덕 3년에 제정된 接主制이다. 대신사는 창도 후 1년 뒤인 신유년에 이르러 포덕(布德 : 일반적으로 포교를 이룸)을 전개하였는데 경상도 일대를 비롯하여 충청 경기 강원도 지역까지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처럼 교세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교단의 규례를 확립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접주제이다. 접주제의 기능은 각지에 接所를 설치하고 接主를 임명하여 교인들을 교화 관리 통솔하는 제도이다.

교조 대신사의 순도 이후 2세 교조 신사에 이르러 교세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전라 충청 경상 삼남 지방과 경기 강원 등 전지역까지 크게 확대되자 조직체제 또한 자연 변화를 가져왔다. 接보다 상위 조직인 包를 정하고 그 포의 책임자로 大接主, 그 아래로 次接主, 首接主, 接主, 接司의 순으로 조직체제를 갖추었다. 당시 접의 규모는 대체로 戶의 단위로 30호 내지 50호 정도였다. 포의 경우 수 십개의 접을 거느리기도 하였다. 초기의 包의 명칭은 대접주의 性이나 이름(名)을 따서 불리웠으나 포덕 34년 3월 보은 장내의 척왜양창의운동 때 공식화시켜 포의 명칭을 정하였다.

包, 接제 이외에 신사는 교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六任制를 창설한 바 있는데 六任은 敎長 敎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으로, 교인 중에서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여 교역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포덕 교화에 힘쓰게 하였다.

이러한 교단의 기본 조직은 동학혁명과 개화기를 거치면서 기관제로 그 틀이 크게 변모되었다. 3세 교조 의암성사는 권동진, 양한묵, 오세창으로 하여금 天道敎大

憲을 제정케 하는 등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포덕 47년 2월 1일 이를 공포함과 동시에 天道敎中央總部를 설치하고 敎旗인 弓乙旗를 제양하였다.

초기 중앙총부는 玄機司 理文觀 庶應觀 典制觀 金融觀 등 1司4觀制로 기본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그 외에 丈室 奉道室 顧問室 등을 두었다.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는 군을 기본 단위로 하여 전국에 72개의 大敎區를 두었다. 이 때 교단의 중요한 사안이나 예산 결산을 다루는 의결기관으로는 部會를 두었다. 그후 포덕 49년 의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의결기관으로 叢仁院을 신설하였다.

포덕 60년 3.1운동 이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단조직은 대한의 폐지, 宗憲의 제정 등을 거듭하면서 조직 구조도 대폭 변경되었는데 포덕 63년에는 敎主室 외에 宗法院 宗務院 宗議院 등 3院으로 하고 다시 종법원은 布德課 編輯課 敎育課로, 종무원은 庶務課 經理課 등 5課를 두었다.

이듬해 포덕 64년에는 중앙총부를 中央宗理院으로, 종전의 3院 5課를 폐지하고 집행기관으로 布德課 庶務課 經理課와 감찰기관으로 監查正 등 3院 1正으로 변경되었으며 의결기관인 종의원은 宗法師會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포덕 71년에는 天約을 제정, 誠道觀 敬道觀 信道觀 法道觀 知道觀의 5觀의 기본 조직과 大領司 宗法室 顧問室 監查觀을 두었으며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法會를 大會로 변경하였다. 이때 제정된 대회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후 포덕 86년 해방 전까지 長老制 道領制 大領制 등을 채택한 바 있으며 해방 직전 구성된 敎化觀 敎務觀 經理觀의 3觀 체제가 오늘에까지 기본조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천도교의 조직 형태는 속인제와 기관제를 모두 살리어 연원회와 중앙총부 두 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속인제의 성격을 그대로 살린 淵原會는 천도교가 가지는 특유의 조직으로 道正 道訓 敎訓 信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원회의 대표는 연원회 의장. 기관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총부는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찰기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천도교를 대표하는 분은 敎領이다. 임기는 3년 단임이며 최고 의결기관인 大會에서 선출한다. 의결기관으로는 교단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교령의 선출, 교단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大會와 예산 결산 등을 다루는 宗議院이 있다. 집행기관으로는 교단의 행정기관으로 중앙총부에 종무원, 지방에 각 교구와 전교실이 있다. 종무원은 교화관 교무관 경리관 을 두어 교단 행정

을 맡고 있다. 감찰기관으로는 중앙에 감사원이 있으며 교단의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종학대학원, 부설기관으로 동학민족통일회, 출판기관으로 (주) 신인간사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청년회, 여성회, 실업인회, 미술인회 등의 부문단체와 의창수도원 용담수도원을 비롯 각 지역에 수도원, 대외협력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교구 또는 전교실이 있으며 현장에서 교화와 포덕을 담당하고 있다.

천도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종교와 같이 전문적인 성직자가 없다는 것이다. 천도교에 있어서의 성직자 개념은 교역자라 한다. 교역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原職이고 다른 하나는 住職이다. 그리고 예우직이 있다. 원직은 도정, 도훈 교훈, 신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정은 자신이 관리하는 교호수가 200호 이상, 도훈은 100호 이상, 교훈은 50호 이상, 신훈은 7호 이상일 때 자격이 주어진다. 주직으로는 중앙의 경우와 지방교구의 경우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 교령을 비롯하여 종무원장, 감사원장, 중앙감사, 종의원, 관장, 차장, 관서, 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령과 종무원장, 감사원장, 중앙감사, 종의원은 3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지방교구의 경우에는 교구장, 부장, 감사장, 감사, 순회교사, 직접전교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방교구 역시 3년마다 개최되는 교구 총회에서 각 주직을 선출하고 임기 역시 3년이다.

천도교의 교역자의 품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천도교는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처럼 성직자의 개념이나 제도가 없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품계 또한 없다. 천도교는 성직자의 용어 대신 교역자(敎役者) 제도가 있다. 교역자의 개념은 말 그대로 '교무(敎務)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자(敎職者)'를 뜻한다. 따라서 교인이면 누구나 교역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천도교의 교역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우직(禮遇職), 원직(原職), 그리고 주직(住職)이 있다.¹⁾ 먼저 예우직은 중요 원직이나 주직을 역임한 원로 교인에게 예우적 차원에서 추대하는 교직으로 종법사(宗法師), 선도사(宣道師)가 있다. 종법사의 경우 원직으로 도정(道正), 주직으로는 원장(院長)급 이상 역임한 교인 및 일생동안 교회에 바친 공로가 현저하고 덕행과 도학(道學)을 겸비한 원로 교

1) 敎憲 제 79조

인으로, 선도사는 첫째 주직으로 중앙총부 원장¹⁾ 및 관장(觀長), 종의원(宗議院) 의원(議員), 중앙감사(中央監査), 재단이사(財團理事), 그리고 지방교구 교구장(敎區長)을 역임한 교인, 둘째 원직으로 도정, 도훈(道訓)을 역임한 교인, 셋째 일생을 교회에 바친 헌저한 공로가 있는 교인이면 가능하다.²⁾

원직(原職)은 연원조직(淵源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원조직은 천도교 창도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독특한 조직으로 전교인(傳敎人)과 수교인(受敎人)과의 종적 관계이다. 연원은 ‘교조인 수운 최제우의 심법계통(心法系統)으로 종법수호(宗法守護)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³⁾을 의미하고 있다. 연원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布德 三年 壬戌 十一月 二十九一에 大神師께서 接主制를 實施한 것이 淵源의 嚆矢이다. 布德 二年 辛酉 六月 二日에 布德을 始作한 後 많은 敎徒를 統和敎導하기 爲하여 傳敎人 中心으로 ‘接’을 組織케 하고 接主가 大神師의 心法을 받들어 布德과 敎化를 擔當케 한 것이 淵源制度의 시작이었다. 그 當時(布德 三年) 初代 接主는 慶州에 李乃謙, 縣西에 白士吉·姜元甫, 劔谷에 崔慶翔, 盈德에 吳明哲, 寧海에 朴夏善, 大邱·清道에 金周瑞, 京畿에 李昌善, 清河에 李敏淳. 延日에 金伊瑞, 安東에 李武仲, 丹陽에 閔士燁, 英陽에 黃在民, 固城에 成漢瑞, 蔚山에 徐君孝, 長耆에 崔仲熙, 興海에 孫鳳祚, 永川에 金達元, 新寧에 河致旭 等 十九接이었다.

以上 接主들이 晝伏夜行 貫天의 精誠을 다하여 川深不息의 活動을 繼續하였음으로 指目과 彈壓이 極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入道하는 사람이 日加月增하게 되었다. 敎勢가 이처럼 擴張됨에 布德 十九年 戊寅 七月에 多數 敎人의 敎化를 強化統一하고 守行規模를 一致케 하기 爲하여 海月神師께서 各地에 接所를 設하고 附近 接主들을 召集하여 一定 期間동안 講道會를 開催하여 修道煉性과 敎理研究를 直接指導하셨다.⁴⁾

원직으로는 도정(道正)·도훈(道訓)·교훈(敎訓)·신훈(信訓) 등이 있으며 각 원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도정(道正) - 200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敎導)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중단없이 오관(五款)을 성실히 수행한 독신교인

2) 연원회운영규정 제11조, 敎憲·規定集.

3) 趙基周. 天道敎宗令集,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3, 189면.

4) 趙基周. 天道敎宗令集,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3, 189면.

도훈(道訓) - 100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敎導)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중단없이 오관(五款)을 성실히 수행한 독신교인

교훈(敎訓) - 21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敎導)한 사람으로 3년 이상 중단없이 오관(五款)을 성실히 수행한 독신교인

신훈(信訓) - 7호 이상 직접 포덕을 하거나 교도(敎導)한 사람으로 1년 이상 중단없이 오관(五款)을 성실히 수행한 독신교인⁵⁾

원직을 맡은 교역자는 자신의 연원 관내를 교회를 수시로 순회교화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⁶⁾ 임기는 일체 무기직(無期職)이다.⁷⁾

주직(住職)은 교령(敎領), 연원회(淵源會) 정·부위원장(正副議長) 및 간사(幹事), 종무원장(宗務院長), 상주선도사(常住宣道師), 종의원(宗議院) 정·부위원장(正副議長) 및 사무장(事務長), 종의원의원(宗議院議員), 감사원장(監查院長), 감사(監查), 종무위원(宗務委員), 교구장(敎區長), 기타 임명직(任命職)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주직 중 전국대의원대회(全國代議員大會)에서 선출되는 주직은 5년 이상, 기타 임명직은 3년 이상, 지방교구에서 선출되는 교구장·감사장·간사는 3년 이상, 그외 부장(部長) 등 임명직은 1년 이상 중단없이 오관을 이행하고 소정의 종학교육을 이수한 교인으로 정하고 있다.⁹⁾ 주직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으로 정하고 있다.¹⁰⁾ 각 주요 주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령(敎領) - 천도교를 대표하며 교회전반을 통리(統理)함¹¹⁾

종무원장(宗務院長) - 종무언(宗務院) 전반사항을 지휘 감독함¹²⁾

5) 연원회운영규정 제2조, 敎憲·規定集.

6) 연원회운영규정 제5조, 敎憲·規定集.

7) 敎憲 제79조.

8) 敎憲 제79조.

9) 교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제3조, 敎憲·規定集.

10) 敎憲 제79조.

11) 敎憲 제33조.

12) 敎憲 제46조.

관장(觀長) -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를 관장¹³⁾,

종의원(宗議員) - 중앙총부의 예산·결산·사업계획안의 심의, 교회중흥과 교무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사항을 중앙총부에 건의¹⁴⁾

감사원장(監查院長) 및 감사(監查) - 교회전반에 관한 규율을 장리, 교무행정에 대한 감사, 교인의 징벌에 관한 사항¹⁵⁾

2. 교육의 방향

인간사회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적 다종교 상황에 기초하면서 後天人類를 敎化할 수 있는 교역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천도교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선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교역자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1) 無極大道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信念

수운대신사(최제우)께서는 東學을 만고 없는 無極大道라 하였다. 인류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무극대도라는 말씀이다. 무극대도란 한없이 큰 道요, 모든 眞理의 本源을 把持한 道요, 모든 종교사상을 內包한 道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극대도의 원리를 깨달으면 모든 종교인들을 원만하게 대하게 되고 종교화합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교역자들로 하여금 무극대도의 本旨를 옳게 깨닫고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종교사회와 미래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敎憲 제47조.

14) 종의원규정 제4조.

15) 敎憲 제59조.

2) 侍天主信仰의 確立 및 祈禱와 修煉의 生活化

종교지도자는 우선 신앙이 확립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항상 수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천도교는 한울님을 믿되 내 몸에 모시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侍天主, 人乃天이라 하는 것이다. 한울님은 天地萬物과 인간을 이루어 놓으시고 만유와 더불어 같이 계시면서 無事不涉, 無事不命하시며 무한히 生成化育하시는 만유의 父母이시며 大宇宙, 大精神, 大生命이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의 이치 기운으로 태어났고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즉 본래의 마음이 곧 한울님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모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교역자들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降靈, 降話を 실지로 체험하고 한울님 모심을 몸과 마음으로 중현함으로써 侍天主信仰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도교는 믿음과 수련과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侍天主신앙의 확립과 동시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전공부와 기도와 수련을 하도록 함으로써 나날이 새로워져서 人乃天진리를 활연관통하여 다종교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원만 무결하고 진실과 능력이 겸비한 인격완성

교회가 다종교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모든 교역자들이 진실과 능력이 겸비하고 원만무결한 인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교역자들이 지나친 우월감, 배타적인 심성, 편협한 사고에 젖어 있으면 타종단과 벽을 쌓게 되고 결국 고립, 배타에 빠지고 생존마저 어렵게 될 것이다. 천도교 교역자들은 3·1운동 때 기독교, 불교와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한 훌륭한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다와 같은 마음과 원만 성숙된 신앙생활태도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和合의 선구자

未來社會는 同歸一體, 世界一家의 새세계로서 人吾同胞 物吾同胞,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찬란한 새로운 人乃天 道德文明세계가 열릴 것이다. 과거에는 不義와 싸우고 혁명을 잘해야 지도자, 선구자가 되었으나 미래에는 和合을 잘 해야 선구

자가 된다고 본다. 천도교 교역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투쟁이 아니라 화합을 도모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同歸一體의 새 세계 건설의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사회에 신념체계가 다른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경쟁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심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얼핏 보아 불행스러운 일로 보여진다. 특히 우리 나라는 종교백화점이라 할만큼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종교화합의 새로운 종교문화가 일어날 조짐이 아닐까 전망된다. 과거 선열들이 우리 나라가 宗教先進國, 宗主國이 된다는 꿈을 가졌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필시 그렇게 귀결되리라고 전망된다. 轉禍爲福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천도교가 이 땅에서 창명되었다고 본다.

수운대신사(최제우)께서 “아동방 구미산은 소중화 생겼구나”라 하시었다. 나라는 작지만 새로운 인류문화의 발상지가 된다는 말씀이다. 미래사회는 한반도가 새로운 인류문명의 중심지가 된다는 말이 결코 우연히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 나라 종교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세확장에만 광분하면서 다종교의 현실을 새로운 종교문화 건설의 길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 종교는 종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는 존재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피해 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다종교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교역자들은 모든 사람의 생존에 직결되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같은 장소에서 모든 종교가 공동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종교별로 의식(법회, 예배, 석전, 시일식, 미사 등)을 거행하는 때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다종교문화에 적응치 못하는 종교는 역사의 현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多宗教社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질적인 많은 종교가 큰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종교간의 마찰을 노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하게도 우리 民族은 옛날부터 모든 宗教를 받아 들여 토착화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오면서는 종교연합활동을 위하여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협의회, 민족종교협의회, 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이 발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종교간의 마찰을 없이하고 세계에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화합의 새로운 종교문화 창출과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선진국으로서의 미래를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한국의 종교현황, 북한의 종교실태, 다종교사회의 문제점, 多宗教社會와 天道教의 역할, 多宗教社會와 未來社會에 대처하기 위한 天道教 교역자 교육의 방향, 그리고 未來社會를 전망해 봄으로써 새로운 進路개척의 길을 찾아보았다. 특히 오늘의 우리 社會는 종교와 종교인은 많으나 사회는 몹시 혼탁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天道教 본연의 使命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天道教 經典>
2. <天道教百年略史> (上) 천도교중앙총부 교사편찬위원회 1981
3. <韓國의 宗教現況> 文化體育部 1997년
4.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공보처 통계청자료 1994년
5. 東亞日報, 1998. 8. 8.